

야생화까지 공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개척 '탁월한 산꾼'

정영재
스포츠전문기자/중앙UCN 부사장

구르자히말 원정서 사고로 희생

'집에서 집으로.'
아시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무산소 등정한 고(故) 김창호(1969-2018) 대장의 모토였다. 고산 등반의 성공은 집에서 출발해 목표를 달성한 뒤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것까지라는 뜻이다.
김 대장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믿어붙인다'는 식의 등정을 싫어했다. 2016년 중앙SUNDAY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원정을 앞두고는 눈사태나 낙석, 식량 고갈, 동료의 부상 등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떤 극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잘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출발해야 한다. 베이스캠프까지 날아가서 정상을 바라볼 때 느낌이 딱 온다. 안 되겠구나 싶으면 미련 없이 돌아서야 한다."

무장 탈레반에 잡혀 총살 위기 맞기도
그랬던 김창호 대장이 2018년 네팔 구르자히말 원정에서 사고로 숨지자 산악계는 충격에 빠졌다. 김 대장이 이끈 '2018 코리아웨이 구르자히말 원정대' 전원이 희생된 이 사고는 네팔 현지인들도 "믿을 수 없다"고 고개를 저을 만큼 예외적이고 미스터리한 참사였다.

2018년 10월 12일 원정대는 구르자히말(7193m)에 신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3500m 지점에 베이스캠프를 치고 정상 등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 대장과 유영직(장비 담당), 이재훈(식량·의료 담당), 임일진(다큐영화 감독) 대원, 현지에 격려차 합류한 정준모 한국산악회 이사가 모여 있던 베이스캠프에 그날 밤 엄청난 돌풍이 몰아쳤다. 이들은 텐트에서 수백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네 팔인 현지 가이드 4명도 함께 희생됐다.

다행히 시신이 수습돼 한국으로 이송됐고, 19일 합동 영결식이 열렸다. 김 대장은 2011년 작고한 고(故) 박영석·김형일 대장과 더불어 알파인 스타일을 고수한 산꾼이었다. 알파인 스타일이란 세르파(히말라야 고산 가이드)의 도움 없이 베이스캠프에서 정상까지 단번에 치고 가는 방식이다.

김창호 대장은 '문무를 겸비한 산악인'으로 통했

체력 좋고 고산 정보 꼼꼼하게 파악
세르파 도움 없이 정상 등반 고수
히말라야서 5년간 살며 빙하 탐사
기록 집착 않고 '코리아 웨이' 뚫어
"존재의 충만감 느끼려 산에 간다"

다. 해병대 시절 3분30초 잠수 기록을 세울 정도로 체력과 심폐기능이 좋았고, 고산 등반에 관한 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한 산악인으로 꼽혔다.

김 대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 회장은 "창호는 호기심과 학구열이 높고,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이었다. 처음 가 보는 산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마을 촌장을 찾아 보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라고 인사를 하는 친구였다"고 회고했다.

김 대장은 2013년 아시아 최초 8000m 14좌 무산소 완등으로 '산악 영웅'의 길을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코리아 웨이'라는 자신만의 길을 택했다. 산의 높이에 집착하지 않고 알파인 스타일로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했다. 바로 신루트 등반이었다. 2016년 강가푸르나(7455m) 남벽에 이어 2017년 인도 다람수라(6446m)·팝수라(6451m) 남벽에 신루트를 냈다.

그는 히말라야가 좋아 그곳에서 5년을 살았다. 홀로 2년 동안 파키스탄 카라코람 빙하를 탐사하며 히든 크레바스(보이지 않는 빙하 속 틈)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긴 장대를 양손에 쥐고 걸었다고 한다. 히말라야에서 무장 탈레반에게 잡혀 죽을 뻔한 적도 있다. 그는 "세 명이 권총을 겨냥했는데, 난 누가 내 머리에 총을 쏠 건지 알았다. 그 놈의 총구와 눈만 보이더라. 결국 그 놈이 내 머리를 향해 총을 쏘았다. 본능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다"고 회고했다. 다행히 총알이 빗나가 그는 목숨을 건졌다.

당시 사고 상황을 되짚어보자. 현지에서 사고를 수습한 최홍건 전 한국산악회 회장은 "텐트는 베이스캠프에서 1km 떨어진 지점의 나무에 걸려 있었고, 시신과 유품은 캠프에서 수백m에 걸쳐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산사태나 눈사태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바람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 김창호 대장이 2012년 네팔 힘중(7140m) 등정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뒤 환호하고 있다. 2 김창호 대장의 모교인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합동영결식. 왼쪽부터 이재훈·임일진·김창호·유영직·정준모 대원. 3 경기도 양주시 가래비빙벽장에서 훈련 중인 김창호 대장.

베테랑 산악인들은 "눈사태나 산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베이스캠프를 덮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0년 안나푸르나 등반 중 베이스캠프에서 눈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경험한 김재수 대장은 "무중력 상태처럼 몸이 붕 뜬다. 가라앉기를 반복하며 통통 튀겨져 나간다. 당시에 70m를 날아갔다"고 증언했다.

2019년 유족들과 함께 현지에 위령탑을 세우고 온 김영주 중앙일보 기자는 당시 시신을 수습했던 현지 가이드를 취재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그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진에 의해 산사태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조강력 후폭풍이 베

이스캠프를 덮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다.

'김창호 정신' 기리는 기념사업회 태동
김 대장과 친형제 못지않은 정을 나눴던 서기석 유라시아트랙 대표는 그를 '탁월한 산꾼'으로 기억했다. "창호는 산에 대해 접근하는 것 자체가 다층적이고 창의적이었다. 등정하려는 산과 주변 지형에 대한 꼼꼼한 조사는 기본이고, 산과 그 동네 이름에 얽힌 스토리, 그 지역에 자생하는 야생화에 대해서도 공부할 정도였다." 서 대표는 '김창호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월간 산' 편집장 출신인 한필석 씨는 김 대장을 구르자히말로 보낼 때 느낌이 너무 좋아 "늦장가



가서 본 딸내미가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말고 귀국하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한다.

한 씨는 "김 대장은 발이 빠르고 힘도 장사였다. 빙하를 탐사할 땐 40kg이 넘는 배낭을 하루 종일 메고 다녔는데 카메라 장비 무게만 10kg에 달했다. 꼼꼼하게 사진 찍고, 기록하고, 외국 자료도 누구보다 열심히 챙겼다. 김 대장은 등반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글로 풀어낼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며 그를 '도전정신과 심미안을 겸비한 산악인'으로 기억했다.

히말라야 8000m급 거봉을 트레킹 하듯 다녀오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고산에 오르고 세 루트를 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김 대장의 생전 육성에 힌트가 있을 듯하다.

"이제 고산 등반은 기록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내가 어떤 루트를, 어떤 방식으로 올랐나,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었는가가 더 중요하다. 산에 대한 존중과 자기 책임, 그리고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다. 내가 산에 가는 이유는? 다른 어떤 행위에서도 얻을 수 없는, 존재의 충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사고 1주기를 맞아 유족들이 구르자히말 현장에 세운 위령탑. (사진 김영주)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